

# 2022. 7월 2주 언론보도 스크랩

## [소방정책] 도 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선정

###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1일  
27면 (인물)

#### 도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선정

##### 2022년 봄철 화재예방 전국 2위

강원도소방본부가 소방청에서 평가하는 2021~2022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도단위 4위)에 선정됐다.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전국 도 단위 2위에 입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한

복권기금 확보 및 화목보일러 주택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시책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석진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11.4\*5.2)cm



## [강원소식] 강원소방, 봄·겨울 안전대책 우수기관 선정

송고시간 | 2022-07-10 17:25



(춘천=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청에서 평가하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건설 현장과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수립, 산림 화재 대응 조치 등을 중점으로 한 예방 활동, 대형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평가에서도 4위에 올라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 더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1방송

2022년 07월 11일  
(강원)

## 강원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소방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여부와 소방·건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을 심의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업소들은 인증표지를 배부받고, 앞으로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소방정책] 강원소방, 도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1일  
(사회)

### 도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선정

신재훈

2022년 봄철 화재예방 전국 2위

강원도소방본부가 소방청에서 평가하는 2021~2022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도 단위 4위)에 선정됐다.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전국 도 단위 2위에 입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한 복권기금 확보 및 화목보일러 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시책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석진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춘천MBC

2022년 07월 10일  
(강원)

### 강원 소방, 도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강원 소방이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관할 소방서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소방본부에서 소방과 전기 등

안전 관련 위반사항을 심의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입구에 우수업소 명판이 부착됩니다

이승연

## [소방정책] 도내 벌쏘임 사고 매년 수백건, 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江原日報

2022년 07월 12일  
(종합)

### 도내 벌쏘임 사고 매년 수백건...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27분께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의 한 펜션 인근에서 A(73)씨가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오후 4시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B(여·60)씨가 강가를 거닐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총 1,089건이다. 이 중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64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가 여름에 집중되는 것은 벌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것도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07월 12일  
05A면 (사회)

### 도내 벌쏘임 사고 매년 수백건 ... 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27분께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의 한 펜션 인근에서 A(73)씨가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오후 4시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B(여·60)씨가 강가를 거닐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총 1,089건이다. 이 중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64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가 여름에 집

중되는 것은 벌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것도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준겸기자

(11.6\*9.4)cm

## [소방정책] 소방경 이하 승진자 및 본부전입자 임명장 수여식

###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2일  
23면 (인물)



도소방본부 승진·전입자 임명장 수여식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11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경, 소방위 승진임용자 및 소방본부 전입자 7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7.5\*5.7)cm

### 江原日報

2022년 07월 12일  
(종합)

### [포토뉴스]도소방본부 승진 임용자 임명장 수여식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1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승진 임용자 50명과 소방본부 전입자 2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7월 13일  
(사회)

## 강원도소방본부, 22년 제2차 정부추경에서 40억 원 국비확보

신재훈



▲ 주민이 직접 활용하여 민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 호스릴, 관창 등이 연결된 소화장치가 구비된 비상소화장치의 모습.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가 '2022년 제2차 정부 추경'에서 영동지역 대형산불 신속대응을 위해 필수장비 구매예산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소방본부는 산불전문진화차 4대와 비상소화장치 450개, 기존 소방헬기에 장착할 배면 물탱크 2대 등을 확충, 도내 산불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불전문진화차는 산간지역 험로주행 및 이동방수가 가능한 산불특화차량으로 현재 5대(환동해특수대응단 2대, 강릉·고성·삼척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국비지원으로 4대를 추가 도입한다.

도소방본부는 향후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90억 원, 산불진화차량 도입 67억 원 등 1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특별자치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재훈

ericjh@kado.net

## 강원소방, 대형산불 대응 필수장비 구매 국비 40억 확보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7-13 15:49 송고 | 2022-07-13 18:34 최종수정

댓글

가



강원도소방본부@뉴스1

산불전문진화차는 산간 지역 험로주행 및 이동방수가 가능한 산불특화차량이다. 현재 5대(환동해특수대응단 2대, 강릉·고성·삼척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국비지원으로 4대가 추가 도입된다.

또 비상소화장치는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설치된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운용 중인 소방헬기(2대·인명구조용)는 산불진화 시 밤비버킷(1500리터)을 별도 장착하는 번거로움과 저공비행 및 목표지점 집중 투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헬기 기체에 배면 물탱크(1800리터)를 직접 장착해 안정적인 비행과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하게 됐다.

**매일경제**

# 강원소방,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장비보강...예산 40억원 확보



### 비상소화장치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2차 정부 추경에서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 구매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40억원 중 15억원은 산불전문진화차 4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13억5천만원, 기존 소방헬기에 장착할 배면 물탱크에 11억8천5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산불전문진화차는 산간지역 험로주행과 이동방수가 가능한 산불 특화차량으로 현재 환동해 특수대응단과 강릉·고성·삼척에 있는 5대에서 4대가 더 추가된다.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 주민이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소화전과 호스릴, 관창 등을 연결한 소화장치로 이번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820개소에서 450개소가 더 늘어난다.

헬기 기체에는 1천800L짜리 배면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비행과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해졌다.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한 국비인 만큼 적시 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강원소방,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장비보강...예산 40억원 확보

송고시간 | 2022-07-13 16:35



### 비상소화장치

[강원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2차 정부 추경에서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 구매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40억원 중 15억원은 산불전문진화차 4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13억5천만원, 기존 소방헬기에 장착할 배면 물탱크에 11억8천5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산불전문진화차는 산간지역 험로주행과 이동방수가 가능한 산불 특화차량으로 현재 환동해특수대응단과 강릉·고성·삼척에 있는 5대에서 4대가 더 추가된다.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 주민이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소화전과 호스릴, 관창 등을 연결한 소화장치로 이번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820개소에서 450개소가 더 늘어난다.

헬기 기체에는 1천800L짜리 배면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비행과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해졌다.

윤상기 도 소방본부장은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확보한 국비인 만큼 적시 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1방송

2022년 07월 14일  
(강원)

## 강원소방, 대형산불 대비 산불대응장비 도입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소방이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전문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소방은 제2차 정부 추경에서 40억 원을 확보해 산불전문진화차 4대와 소방헬기 아래에 장착가능한 물탱크 2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산불이 우려되는 동해안 일대 산불 취약지역 450개소에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江原日報

2022년 07월 14일  
02면 (종합)

### 영동지역 산불 대응 장비 구매 도소방본부 국비 40억원 확보

강원도소방본부가 영동지역 산불 대응 장비를 위한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다.

도소방본부는 제2차 정부 추경에서 영동지역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구매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3월 영동지방 대형 산불을 계기로 신속한 도내 산불 대응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전문진화차 4대, 비상소화장치 450곳, 소방헬기에 장착할 배면물탱크 2대에 사용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도 산불 재난 특성에 요구되는 소방활동 환경을 구축했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소중한 국비를 확보했다”며 “확보된 예산을 적시 적소에 집행해 도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소방 안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준겸기자

(5.7\*13.9)cm

## 강원소방, 대형 산불 장비 구매 국비 40억 원 확보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정부의 2차 추경에서 대형 산불에 대응한 장비 구매 예산으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산불 전문 진화차 5대 이외에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산불취약지역 450곳에 소화전과 소방호스 등 비상 소화장치 설치와 소방헬기에 장착할 물탱크 두 개도 구매합니다.

김태희 bigwish@kbs.co.kr



홈 · 뉴스 · 정부/공공

##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위한 점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 화재대피로 관리실태 점검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오는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강원도 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대피로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월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출입구가 일상회복 이후에도 상당수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시설 이용객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판매·의료·노유자 수용·숙박시설 등으로 강원도 내 3065개소가 해당되며 20% 이내 표본점검을 실시해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소방본부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통해 화재 대피로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해 화재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3분마다 현장에 나타난 강원 소방관...상반기 8만회 출동

|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외부활동 증가·기상악화 요인 분석



춘천 신축 고층 아파트 화재...분주한 소방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3분여마다 각종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원소방에 따르면 지난 1~6월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은 8만1천9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566건보다 소폭 늘었다.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53건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3분 17초마다 현장에 출동한 셈이다.

화재 출동은 1천1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2건과 견줘 11.5% 늘었다.

화재로 인해 1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3월에 강릉-동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4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조는 1만6천637건 출동해 9천533명을 구했고, 구급출동은 6만1천728건에 3만8천334명을 이송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3천833건으로 동물포획 1천260건,

안전조치 1천77건, 잠금장치 개방 54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소방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해 안전사고가 늘고, 가뭄과 기상악화로 인해 임야화재가 매우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소방대원들 삼척 산불 진화 안간힘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소방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인명구조와 구급 출동 증가에 대비해 풍수해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고, 산불 전문진화차와 고가사다리차 등을 보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대형산불 피해를 막고자 동해안 6개 시군 산림 인접 마을에는 비상 소화장치 45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적용해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강원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지방 > 강원

## 강원 소방,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453건·3분 17초마다 출동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07-14 18:23 송고



화재를 진압하는 강원도 소방 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 제공)@뉴스1

2022년 상반기 강원도 소방 대원들은 하루 평균 출동 453건, 3분 17초마다 현장에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은 총 8만19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8만566건) 증가했다.

화재는 1162건으로 지난해 보다 11.5%(1042건) 늘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7명(사망 16명, 부상 61명), 재산피해는 약 494억원이다.

특히 지난 3월 강릉·동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300억원)로 재산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또 소방에서는 1만6637건 출동해 9533명을 구조했다. 사고종류는 교통사고가 1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악구조 496건, 수난사고 214건, 승강기 고립 163건, 추락사고 141건 순이다. 하루 평균 구조는 92건, 시간 당 3.8건의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한 셈이다.



연말 출동에 나선 강원도 소방 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 제공)©뉴스1

구급은 6만1728건으로 3만833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 관련 이송건수는 317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구급활동은 하루 평균 341건, 4분 2초마다 구급차가 출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안전출동은 3833건으로 동물포획이 1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조치 1077건, 잠금장치 개방 5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동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가 감소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민들의 외부활동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도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적용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강원도소방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 소방, 상반기 81,989건 출동.. 3분에 1건

올해 상반기 동안

소방 출동은 하루 평균 450여 건,

3분에 1건씩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6개월 동안 출동 건수는

화재 1,162건, 구조 16,637건

구급 61,728건 등 총 81,9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원 소방은 여름철 인명구조와

구급상황으로 출동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풍수해긴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매일경제

2022년 07월 15일  
(사회)

## '한 방쯤이야...' 무시했다간 '큰 코'...여름철 뱀 주의보

강원서 사망·부상 사례 잇따라..."잡지 말고 119 신고"



뱀  
여름철 활발한 먹이활동으로 출현이 잦아진 뱀에 물려 다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한 주택에서 80대 A씨가 집에 들어온 뱀을 맨손으로 잡다가 물렸다.

이튿날에야 병원을 찾은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목숨을 잃었다.

지난 14일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던 50대가 뱀에 물려 다치기도 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뱀물림 사고는 2019년 91건, 2020년 71건, 2021년 109건 발생했으며, 대다수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3건이 7월에 접수됐다.

강원소방관계자는 "여름철 야외활동 시 인적이 드문 풀숲이나 나무 넝쿨 진입은 자제하고 뱀 발견 시 제거하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한 방쯤이야...' 무시했다간 '큰 코'...여름철 뱀 주의 보

송고시간 | 2022-07-15 17:44

### | 강원서 사망·부상 사례 잇따라..."잡지 말고 119 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여름철 활발한 먹이활동으로 출현이 잦아진 뱀에 물려 다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한 주택에서 80대 A씨가 집에 들어온 뱀을 맨손으로 잡다가 물렸다.

이튿날에야 병원을 찾은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목숨을 잃었다.

지난 14일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던 50대가 뱀에 물려 다치기도 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뱀물림 사고는 2019년 91건, 2020년 71건, 2021년 109건 발생했으며, 대다수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3건이 7월에 접수됐다.

강원소방관계자는 "여름철 야외활동 시 인적이 드문 풀숲이나 나무 넝쿨 진입은 자제하고 뱀 발견 시 제거하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tae@yna.co.kr

### 강원 뱀 물림 사고 잇따라... '뱀 주의보'

최근 강원도에서 뱀에 물려 다치거나 심한 경우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7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한 주택에서 80대 A 씨가 집에 들어온 뱀을 맨손으로 잡다가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튿날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14일 오후 6시 반쯤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던 50대 남성이 뱀에 물려 다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뱀 물림 사고는 2019년 91건, 2020년 71건, 2021년 109건입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달에만 13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소방관계자는 "여름철 야외활동을 하다가 뱀을 발견하면 제거하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청초

### 도내 벌쏘임 사고 매년 수백건...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27분께 평창군 진부면 탐동리의 한 펜션 인근에서 A(73)씨가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오후 4시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B(여·60)씨가 강가를 거닐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총 1,089건이다. 이 5중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64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가 여름에 집중되는 것은 벌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것도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